

나주시, 장애인콜택시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차 시행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이동권 강화



장애인콜택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 18대를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는 맞춤형 교통 복지 서비스가 나주에서 본격 시행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배차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이용 편의를 한층 강화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8월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배차 체계를 개선해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배차하는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특성과 대체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장애인콜택시

시 관내 이용 신청 시 휠체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순으로 차량을 배차했으나 앞으로는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배차하고 비휠체어 이용자는 순차적으로 배차하도록 운영 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선으로 휠체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긴급한 이동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이동에 가장 큰 제약 받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현재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18대와 바우처택시 2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교통약자 등록자는 1천867명이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커피 한 잔에 담은 청렴” 소통 캠페인

화순군, 폭염경보 속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총력

담양군은 지난 3일 군청에서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청렴 소통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박종원 담양군수가 직접 직원들에게 청렴 문구가 담긴 커피를 전달하며 청렴의 가치를 일상에서 함께 나누고, 여름철 각종 업무로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군수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커피를 건네며 청렴의 의미를 함께 이야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청렴을 어렵고 딱딱한 가치가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지난 8월 1일 오후 1시를 기해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해 폭염 시간대 농작업 자제와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화순군에서는 지난 5월 17일, 7월 26일과 27일, 8월 2일 각각 1명씩 총 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순군은 농작업 전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무더위 시간대 작업 자제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노인복지관,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 취약 어르신 위한 안전한 휴식 공간 제공



영광군 노인복지관 전경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부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여름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복지관 내 냉방시설을 갖춘 공간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해 운영한다.

무더위 쉼터는 복지관 운영시간인 09:00 ~ 18:00까지 누구나 자유

롭게 이용 할 수 있으며,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기간에는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 및 야외 활동 자제 등 폭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폭염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여름철 재난인 만큼,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영광군은 폭염 기간 동안 무더위 쉼터 이용을 적극 안내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피는 등 안전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 활동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가 어르신들이 잠시 더위를 피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장성군 “강레오 셰프와 그려보는 외식문화의 미래”

6일 장성아카데미 ‘푸드테크와 외식문화’ 주제 강연... ‘토크 콘서트’ 형식

장성군이 변화하는 외식산업 경향을 짚어보고, 미래 먹거리 트렌드를 조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군은 6일 열리는 제1236회 장성아카데미에서 강레오 셰프를 초청해 ‘푸드테크와 외식문화’를 주제로 강연을 갖는다.

강레오 셰프는 수빙고리테일 최고마케팅책임자,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서울식음식총괄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외식산업 분야 전문가다. 다양한 방송과 강연을 통해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강 셰프는 요리사를 꿈꾸던 청년 시절부터 유명한 요리사가 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술한 도전의 과정과 음식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진솔하게 들려준다.

식품과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산업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푸드테크’가 우리의 음식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장성 농산물이 지닌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농업과 외식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본



강레오 셰프 사진

/장성군 제공

다. 그밖에 다양한 사례를 통해 외식산업의 미래 모습을 조망하고, 외식업 진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는 일방적인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강연과 대담이 어우러지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된다. 강연 이후, 전문 진행자가

강 셰프와 마주 앉아 청중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소통을 이어간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 외식업 종사자는 물론, 외식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더없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단 8월에는 1회만 운영해, 다음 강연 일정은 9월 3일로 예정돼 있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